플래시백 〈1996년 9월 2일〉

MBC 드라마 '애인'이 첫 방송했다. 30대 기혼자들의 서로 다른 사랑 이야기를 그린 '애인'은 유동근, 황신혜, 이응경 등이 주연했다.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의 미묘한 심리로 세련된 '불륜드라마'라는 화제와 비난을 동시에 모았다.

연기만 40년, 아직도 뜨겁다 | '세젤예' '지정생존자' 명품 조연 조 선 묵

"정년 없는 연기자 내 인생 최고의 복"

코믹부터 정치극까지 '다이내믹' 환갑배우 아직도 찾아줘서 감사 18일 첫방 '달리는 조사관' 악역 '악독함의 끝판왕' 기대해주세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게 '복'이지. 하하하!"

연기자 조선묵(59)은 호탕하게 웃으며 백발로 물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KBS 2TV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세젤예)과 tvN '60일, 지정생존자'에 연이어 출연하면서 연기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한 덕분일까. 최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동아 사옥에서 만난 그는 "그동안 영화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오늘만큼은 '연기자'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코믹부터 정치극까지, 참 '다이내믹'"

조선묵에게 올해 상반기는 "유난히 기억에 짙게 남을" 시간이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코믹한 캐릭터"를 맡은 '세젤예'와 정치인의 그림자 같은 비서를 연기한 '지정생존자'를 통해 극과 극의 연기를 펼쳤다.

"6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드라마 촬영을 마무리하고 한 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도예 쌤(선생님) 아니에요?'라며 신기해하더라. '세젤예'에서 박정수를 비롯한 동네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훔치는 독특한 역할이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모양이다. 야성적인 느낌을 위해 '꽁지머리' 헤어스타일도 자처할 만큼 애정을 쏟은 보람이 있었다. 하하!"다리 부상으로 아쉽게 '세젤예'에서 하차했지만, 이후 체력 회복에 집중한 덕분에 18일 시작하는 OCN 새 드라마 '달리는 조사관'에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달리는 조사관'에서는 악역으로 나오니 '악독함의 끝'을 기대해 달라. '지정생존자'는 시즌2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작진에게는 이미 윤찬경(배종옥)이 대통령이 됐다 탄핵 당한 뒤 박무진(지진희)이 다시 선거에 나서는 내용은 어떠냐고 말해 놨다."(웃음)

● "다양한 경험 있으니 시선도 달라지죠."

조선묵은 연기 외에도 다양한 이력을 자랑한다. 영화제작사 활동사진 대표로서 영화 '집행자' '실종' 등을 제작했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적도 있다. 연기자로서는 그 경험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작품 시나리오를 받으면 어느 새 기획자의 눈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날 발견한다. 작가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써내려갔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런 생각들이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지정생존자'도 우리나라 정치현실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았는데, 리메이크를 한 대본을 통해 작가의 노고를 더 여실히 느꼈다. 그런 작품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연기했다."

그는 "연기만 42년 해온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우라는 직업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하지만 평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힘든 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다. 나 또한 앞으로도 '정년 없이' 연기를 계속 하고 싶다."

조선묵은 "평생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종사했으니 언젠가는 그 경험을 녹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 "비록 '톱스타'는 아니더라도, 이순재·신구 선생님처럼 늦도록 현장에서 후배들과 호흡을 맞추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졌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조선묵 ▲1960년 6월18일생 ▲1983년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로 데뷔 ▲이후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사의 찬미' '마누라 죽이기' '청풍명월' '변호인' 등 영화 ▲영화 '마지막 선물' '집행자' '실종' 제작·영화제작사 활동사진 대표 ▲2016년 MBC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출연 ▲2019년 KBS 2TV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tvN '60일, 지정생존자' 출연, OCN '달리는 조사관' 출연 예정

월화드라마 없앤 KBS 단막극은 제작, 왜?

이달부터 신인등용문 '드라마 스페셜' 다양성과 실험정신… "방송사 자존심"

KBS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드라마 제작이 예전만큼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단막극 제작에 힘쓴다.

KBS는 2010년부터 제작해온 단막극 시리즈 '드라마 스페셜'을 이달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두 편의 촬영을 완료했으며, 순차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 사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KBS는 7월 중순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광고 수입 급감과 제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화드라마 폐지 등 프로그램 통폐합을 통해 TV프로그램을 현재의 9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드라마 스페셜'을 시청률이나 광고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제작진의 다양성과 실험 및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는 무대로 삼아 적극 제작, 방송할 계획이다. '드라마 스페셜'은 미니시리즈나 주말극에서 접하기 어려운 참신하고 독창적인 내용을 다루며 시선을 모아왔다. 또 신입 제작진을 포함해 연기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주목 받았다. 적지 않은 PD, 작가, 연기자들이 '드라마 스페셜'을 거쳐갔다.

KBS 드라마국 지병현 책임프로듀서는 1일 "그동안 시청자 호평을 받은 '드라마 스페셜'은 방송사의 자존심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제작비 면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작아 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BEVERLY HILLS POLO CLUB

100% 이태리 천연소가죽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명품 브랜드,건강 기능성 신발을 만나다! 걷는 것만으로 건강과 교정이 OK!

천리를 걸어도 발이 편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건강슈즈

ALL IN ONE (올인원)

100% 이태리 소가죽을 사용하여 가볍고 부드럽고 견고하며 신사가 신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신발!

- 100% 국내 장인의 손길로 제작
- 특허받은 깔창의 자세 교정 효과
-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 100% 천연소가죽에 탁월한 내구성
- 뒤틀림,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럿지창
- 3종 특수 소재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
- 정장부터 등산복까지 어울리는 다기능화
-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이 발을 건강하게
- 원터치 락(LOCK) 버튼으로 신고 벗기 편함
- 향균, 방취, 통풍의 기능으로 발을 늘 쾌적하게

발의 형태교정 깔창 특허 / 악취제거 깔창 특허 / 미끄럼방지 밑창 특허

올인원 신사화의 강력한 6중 구조도



(특허 제 10-0687107 호) (특허 제 10-0493138 호)



모델명
올인원 PA1 (블랙)
올인원 PA3 (브라운)

(남여공용)

NAVER 검색창에 진수테크쇼핑 을 쳐보세요

사이즈 : 230 / 235 / 240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피로를 흡수하는 신발, 걸을수록 편안해진다!!

3D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보행시 발의 피로감 감소!
특허받은 오솔라이트 깔창으로 통풍 원활 및 발냄새 제거에 탁월!

세계적인 브랜드 비버리 힐즈폴로클럽에서 인도어와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하고 사계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전천후 올인원 천연가죽 남녀화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트래킹화에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일일명 만능 신사화가 탄생한 것이다.

쿠션감이 좋은 인솔을 내장하여 장시간 걷는것은 물론 등산, 트래킹이나 험한 작업, 운동등이 가능하며 직장인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 버튼을 내장하여 견고함을 더욱 보강하였으며 이태리 직수입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하여 가볍고 견고하며 부드럽다. 색상은 블랙, 브라운 2가지 색상으로 생산되며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제작되고 액션가죽이 아닌 100%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질기고 견고하며 튼튼하여 정장신사화의 트래킹, 등산화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가를 발휘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파이런중창을 내장하여 심한 운동이나 작업시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관절보호에 큰 도움을 주며, 발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특허받은 용수철 지압봉에 오솔라이트 깔창을 내장하였고 인체에 중요한 용천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발냄새 제거 및 통풍이 잘되고 쿠션감이 좋아 장시간 걸어도 피로도를 감속시켜주는 기능성 건강 신발로 급 부상하고 있다. 강철같은 와이어를 꼬아만든 원터치 버튼은 최적의 장력으로 발을 감싸주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신발끈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더욱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 신발의 개념을 바꾸는 올인원 남녀화는 발의 형태와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며 어떤 일을 하든지 최적의 보행 조건을 갖춰주고 고급 등산화, 트래킹화가 가지고 있는 방한, 방풍, 방습, 방취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최고급 소재로 엄선 제작하였다. 실내에 활동이 많은 분이나 실외에서 운동 및 활동이 많은 분들께 매우 유용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글로벌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1켤레 ~~228,000원~~ → 128,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제품구입 문의전화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1566-1788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 할부혜택!